



‘호남’ 틀에서 벗어나 ‘전북 뭉 찾기’ 실행

전북도가 올해 ‘전북 뭉 찾기’와 ‘10대 핵심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전북도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제19대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를 ‘전북 뭉 찾기’의 원년으로 삼고, ‘호남’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 전북 독자권역의 발전을 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영남은 TK, PK로 구분돼 정책, 예산, 인사부터 정치적 대우에 이르기까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독자적인 지역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호남은 문화와 정서가 확연히 다른데도 전북과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어 지역적인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호남내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주류고 전북은 비주류로 여겨 광주와 전남에 편중된 지원을 해놓고 호남 뭉을 쟁겨왔다고 하는 전북 소외의 일상화, 전북소외에 대한 무감각 현상이 만연했다”며 “올 한해 조기대선 등 변화의 정국에서 ‘전북 뭉’을 확실히 쟁겨나가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전북 뭉 찾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선 대선 공약사업과 2018~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대규모 사업이 완공될 2020년을 겨냥한 2020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새로운 정부 장관관 임명 시에 전북 뭉을 요구하고,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의 국가사업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종합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서도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인식,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논리개발도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송 지사는 “전북 뭉 찾기는 균형 발전을 하지는 하나의 상징적 구호”라며 “그러나 상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 전북 뭉 찾기를 위한 추진계획을 9개 분야로 나눠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대선공약에서부터 국가예산, 인사, 정책성 확립, 도민 참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통해서 ‘전북 뭉 찾기’를 전북 민심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북도는 ‘전북 뭉 찾기’와 함께 삼라농정, 토탈관



대선 공약사업·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020년을 겨냥한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 추진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등 국가사업 정상화 요구
2017 전북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와 병행기로



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과제의 결실을 높여 나가기 위해 2017년 전북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기로 했다.

2020년에는 전북도가 꾸준히 추진해 온 새만금 1단계 SOC가 마무리되고, 탄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새만금 동서2축·남북2축 완공, 새만금 농업용지 및 신항만 완공, 새만금공항 및 금융타운 착공 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의 전환점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올 한해를 2020년 대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먼저 FIFA U-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올해를 ‘전북방문의 해’로 삼아 이달 중 선포식을 갖고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해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5대 분야 30개 세부실행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민선6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삼라농정 실현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카드’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도입’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소산업은 지난 해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통과에 이어 탄소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을 통해 탄력을 더 할 예정이다.

또 올 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끝으로 12개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 도시를 농생명 허브, 연구개발 금융타운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2017년은 대선이 치러지고, 2023 세계잡버리 새만금 유치 결정이 이뤄지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추적인 시기”라며 “전라도 정도 천년을 1년 앞두고 그간 호남이란 이름으로 소외받아 온 전북 뭉 찾기에 적극 나서고,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결실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쁜소식 학교혁신 전북교육청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